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480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안일자 : 2020년 5월 4일
- 라. 회부일자 : 2020년 5월 4일

2.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 산하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을 시행중임
- 나.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따른 보증공급이 급증하여 법상 보증한도 초과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보증공급 시행을 위한 보증재원을 2020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출연코자 하며
- 다.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나. 주요사무 :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
지원 및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다. 추진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라. 출연의 필요성

-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따른 보증공급 급증으로 '20.5월말 경
법상 보증한도 초과 예상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증공급을 위해 법상 보증한도인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출연금 출연을 통한 기본재산 증액 필요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보증지원의 급증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배수가 법정 최고 보증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채무 보증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¹⁾에 따라 출연 전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의 적정성

-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어(1999.6),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소재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과 원활한 자금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음.
- 서울시는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보증정책의 목표 달성과 재단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적정 운용배수(6.3배)²⁾ 유지를 위한 90억원³⁾을 출연하였음.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재단은 보증지원에 따른 부실액 감당을 위한 적정 운용배수(보증잔액 대비 기본재산 비율)로 5~7배를 유지해 왔음.

3) 보증재원 69억 2천만원/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20억 8천만원

-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중소기업육성 자금에 대한 특별보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2020.3.24.)을 통해 36억 6천 5백만원의 출연금⁴⁾을 추가 지원하였음.
- 이와 같은 융자지원 확대 조치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와 매출의 급감으로 일부 소상공인은 고정비 지출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어, 코로나 특별보증의 확대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코로나19 이후 97.6%의 사업장에서 매출이 감소(매우감소 77.3%, 감소 20.3%)⁵⁾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20년 1분기 실질 GDP는 전기대비 $\Delta 1.4\%$ 역성장하였고, 민간 소비가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인 $\Delta 6.4\%$ 감소해⁶⁾ 소비 위축과 소득 감소가 크게 우려되고 있음.
- 이러한 경기침체와 민생위기로 인해, 재단의 5월 현재 보증공급 실적은 이미 2019년 연간 추진 실적과 유사한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음.

4) 코로나19 피해기업 보증지원 급증으로 발생한 업무처리 지연문제 해결을 위한 시니어 기간제 인력 인건비 6억 6천 5백만원/ 저금리 대한대출을 위한 특별보증재원 30억원

5)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2020.2.20.)

6) 한국은행, 2020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2020.4.23.)

< 최근 2년간 신용보증 공급 및 잔액 현황 >

(4.24. 기준, 단위 : 건, 억원, %)

구 분		2019년 추진실적	2020년		
			연간계획	실 적	달성률
보 증 공 급	건 수	68,556	61,000	64,564	105.84
	금 액	18,780	20,000	20,088	100.44
보 증 잔 액	건 수	211,023	243,000	265,066	-
	금 액	42,377	47,000	59,007	-

-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5월말 보증공급은 5조 7천 3백억원, 보증잔액은 약 9조 5천 7백억원 규모로 전망되며, 예상 운용배수는 15.2배에 이르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최고 보증한도(15배)⁷⁾를 초과하게 됨.

< 예상 보증잔액 산출내역 >

(5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직접보증	위탁보증	합 계
'19년말 보증잔액 (A)	42,377	-	42,377
'20년 보증공급 (B) [a+b+c+d]	43,263	14,000	57,263
1.1.~4.10. 공급 (a)	8,604	-	8,604
4.10 현재 진행 중 (b)	29,259	-	29,259
*추가진행 보증 (c)	5,400	-	5,400
기업은행 초저금리 (d)	-	14,000	14,000
보증해지 (C)	3,962	-	3,962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9조(보증의 한도) ①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 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분	직접보증	위탁보증	합 계
'20년 5월말 보증잔액 (A+B-C)			95,678

- * 진행 중 : 코로나(市) 2,517억원 + 코로나(정부) 21,570억원, + 기타 일반 5,172억원
- * 추가진행 :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2,000억원 + 코로나 추가 특별자금 1,600억원
+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대출 600억원 + 기타 일반보증 1,200억원
- * 위탁보증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관련 보증

▶ 5월말 기준 예상 기본재산* : 6,315억원 - '19년말 6,388억원 + 출연금 603억원 + 수익 653억원 - 비용 1,329억원
▶ 5월말 기준 예상 운용배수 : 15.2배(95,678/6,315)
▶ 500억원 출연시 예상 운용배수 : 14배 - 5월말 보증잔액 95,678억원 / 5월말 기본재산 6,815억원 = 14.04

※ 수익(이자 등) 및 비용 항목(대손충당금, 대위변제준비금)은 1년분을 월할 계산

- 이에 서울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500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해 채무 보증여력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보증 공급을 지원하고자 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1차추경예산 (B)	기정예산	증감 (A-B)
신 용 보 증 재 단 출 연 금	62,665	12,665	9,000	50,000

-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경제주체들의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한 추가 출연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번 출연금 확대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 시급성이 인정됨.
- 최근 들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소 안정되었지만, 2/4분기에 들어서면서 생산, 수출, 소비, 고용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증지원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⁸⁾.

- 그러나 이번 추경을 통한 500억원의 추가 출연 이후에도 재단의 운용배수는 14배에 달해 여전히 적정운용배수(5~7배)의 2배를 상회하게 되며, 보증사고 발생과 대위변제 등을 감안하여 최소 운용배수를 12배 이하로 유지하더라도 1,658억원의 예산이 필요함.
- 따라서 안정적인 공공 정책자금을 통해 민생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단 출연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 확대 정책이 필요함.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나래	02-2180-8057

8) 7월 이후 운용배수 15배 초과 전망